

중국유학생 위한 템플스테이 열린다

불교문화사업단, 유학생 320명 대상으로 28일 첫 행사



한 학생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템플스테이는 지난 2월 1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동국대학교의 업무협약(MOU) 이후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유학생 320명을 선별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 2학기부터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4회에 걸쳐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 전통문화 및 템플스테이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수덕사에 있는 불교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또한 '차후명상' '자애명상' 등을 통해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중 불교의 이해'와 '템플스테이와 한국불교의 이해' 등 한국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중국어로 제공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박 3일간의 체험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인증서를 발급하고, 향후 더욱 폭넓은 템플스테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원전으로 하여금 한·중 문화교류 확산에 기여하고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며 "템플스테이가 학업에 지친 유학생들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참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동아시아권 대상층을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통해 높아지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템플스테이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불교문화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승만보살정진 1500일 회향 수계법회

4월 13일 육지장사서, 다문화가족 50명도 수계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4월 13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승만보살 1500일 회향기념으로 열리는 '제4회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거행한다.

이번 법회는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열린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인 표교원장 지원 스님이 개사로 지난 해 7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에 진행하던 다문화가족 법회 참가가족 50명이 수계를 받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재가불자가 설주가 되 전승되는 <승만경>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대승보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구보리 하회중생하는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2009년 승만경연구회를 발족해 승만경 대중화에 힘써왔고, 그 일환으로 2010년(승만보살 10대원 수행정진 입제식)을 시작으로 100일 단위로 법회를 열어왔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불교여성개발원 회

원은 물론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개발원은 4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아함경·니까야 읽기 집중반'을 진행한다.

동국대와 금강대, 원광대에서 강사를 역임한 백도수 씨가 지도강사로 '아함경 읽기-아함경에는 알아야 할 불교의 광맥이 있다'를 강의한다. 이머링 불광교육원 전임강사가 '니까야 읽기-네 개의 주제로 만나는 니까야'를 강의할 예정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나해 불교경전강좌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아함경·니까야 읽기 집중반을 개설한다. 강의는 초기경전에서 가려 뽑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아함경 속에 나타난 여성과 관련된 경전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여성의 수행, 출가, 가정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초기 불교 입지를 공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의료 봉사 환경 인프라 구축에 전념”

병불련, 3월 27일 연합대법회... 제6대 회장에 김진섭 원장



김진섭 회장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 진리의 뜻을 되새기며 약사여래 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는 의료포교의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대법회 및 제6대 회장이·취임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표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류재환 전 병불련 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등 내빈을 비롯한 병불련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섭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특화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 환경 개선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병불련 회원들에게 아픈 이웃들과 동고동락하며 정진하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중생과 큰 기쁨을 나누고 이고득락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물질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우리 모두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해 인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일화의 꽃을 피우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제4·5대 회장을 맡았던 류재환 회장에게 지난 6년간 병불련을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

패를 전달했다.

류재환 전 병불련 회장은 임명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의료포교 선두에 서서 막막하기만 하던 6년 전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중단 사부대중과 함께 쌓아 올린 의료 포교의 탑들이 이제는 초석을 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며 "이제 병불련이 갖추고 있는 의료장비는 현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 조직은 전국 7개 병원으로 시작해 이제는 18개 병원 회원으로 배가 조직 확대 되고 있다. 병불련 회원과 함께 의료봉사를 펼친 환자 진료의 수는 27만 명을 넘고 있다. 부족한 저에게 자비와 신뢰로 따라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병불련은 1999년 10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불자 의료인들이 모여 창립한 신형단체다. 현재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8개 병원 불자회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1999년 10월 서울 시내 7개 병원 불자회 대표들이 모여 창립 발기대회를 가진 병불련은 이듬해 흥천 구만리에서 제1회 의료봉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01년부터 매년 봄·가을 국내 의료봉사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조계종 중단 주체 행사에 의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중단 봉축행사, 어린이 전진 포교대회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비롯해 의료혜택이 낙후된 백령도와 같은 섬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도 시행해오고 있다. 최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대법회 및 제6대 회장이·취임 법회'를 열었다.

근에는 이주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봉사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몽골·미얀마·라오스 등 해외의료봉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를 '재결집 원년의 해'로 삼은 병불련은 인력을 확충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진섭 회장은 "현재 병불련 회원이 200여명 정도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봉사를 가면 한명의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병원과 연계해 불자 의료인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병불련은 의료장비 현대화에 주력해 초음파기, 혈액검사기 등을 마련해 진료 분야를 다양화 했다. 병불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후원자 및 불자기업과 연계해 재정을 마련하고 치료진료시설 및 의료버스, 약품저장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섭 회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불자와 간호사들 가운데 퇴직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올해를 재도약 하는 해로 삼은 만큼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섭 회장은 강원도 철원 김화치과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도시보다 한적한 시골이 좋아 첫 개인 진료소 포천에서 철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주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매일 108배를 하는 등 열심히 수행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4명 있는 가정과 성직자에게는 무료로 진료하는 등 생활 속 보시행도 실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할아버지가 조계종 전 종정 서용 스님을 결여해 모시고 임제선원 조실 종성 스님과도 인연이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련, '제30회 연꽃문화제' 10개 지역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칭찬' 시제로 예선 진행

천진불들이 모여 글과 그림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30회 전국연꽃문화제' 예선 대회를 전국 10개 도시에서 나누어 개최한다.

연꽃문화제는 어린이 불자들이 글짓기·그림으로 표현하는 축제다. 올해 시제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칭찬'으로 10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예선이 열리며 동련 사무국으로 행사지역 개최일 3일 전까지 직접 우편 접수 가능하다.

예선은 4월 17일 대구 신천둔지에서 열리는 대구 연꽃문화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4월 20일에는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동련 부산지구 주관으로 부산 연꽃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어 강원(26일), 광주(26일), 전남(26일), 제주(5월 3일), 울산(5월 6일), 밀양(5월 11일), 서울·경기(5월 18일)에서도 예선이 펼쳐진다.

동련은 각 지역 연꽃문화제 예선 참가자들의 작품을 당일 심사에 시상해 하며, 작품수집 후 본선 후보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동련은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하고 사찰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연꽃문화제를 기반으로 전국어린이, 더 나아가 다문화어린이들에게 천진불의 향기를 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51)864-4569

이나은 기자

사회문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불교아카데미, 4월3일부터 리더스클럽 강좌 진행

불교계 교육, 리서치, 컨설팅 전문기관인 (사)불교아카데미(이사장 이수택)는 재가불자 지도자를 양성하는 'M·Y 리더스클럽 특별강좌'를 연다.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4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우리함께빌딩 2층에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인류의 문명사적 위기와 불교(이도훈 한양대 국문과 교수) △현대 과학의 흐름과 불교(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인간 붓다, 그 위대한 리더십(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10계명 (이범수 웰다잉운동본부 교육위원장)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혜문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대

표)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대해 스님 조계종 국제선원장)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은 축복(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윤명철 동국대 교수) △삼의 의미를 묻는 불교적 방법들(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으로 마련된다.

불교아카데미는 "사회는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남과 북은 끝을 알 수 없는 대치상황에 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부처님의 위대한 리더십을 불자들이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번 특별강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278-1087

이나은 기자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23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인원	상금
학술상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뛰어난 학술연구저서(역주포함)를 출간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내 출간된 학술연구저서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심사대상 : 최근 2년이내의 실적물		

2. 시상일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 1부
4. 접수처 및 접수방법
①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10동 401호 (서초동) 재단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마감: 2014년 6월 30일
③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E-mail 접수: runner333kr@naver.com
5. 수상자 발표
2014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法人 理事長 朱永云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복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서, 조석중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현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법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